

## 교원, 연구사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척후병이 되자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애국의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번영의 위대한 역사를 새겨온 자랑스런 투쟁과 전진의 해 주체108(2019)년을 보내고 새해 주체109(2020)년을 맞이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굴함없는 투쟁의 한해가 또다시 시작되는 첫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 접한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동과 흥분으로 끓어번지고 필승의 신심과 배짱은 백배해지고있다.

지난해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도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크게 과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일대의 자연지리적특징들을 수자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다매체편집물을 훌륭히 제작하여 백두산종합박물관을 찾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보여줄수 있게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수학부문의 교원, 연구사들은 우선 전력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언제건설용 세멘트생산과 콘크리트시공을 우리 식으로 해결함으로써 많은 자재와 연유를 절약하고 공사기일을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화력발전소들에서 설비들의 정상가동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경공업부문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표본, 본보기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하고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위생문화적인 생산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령도자와 뜻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높은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의 필연적 결과이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라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기였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정면돌파전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아가야 할 영예로운 투쟁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우리 당이 결심한 정면돌파전은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관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우리 당은 **김일성**종합대학교원, 연구사들이 영예로운 척후병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확신에 넘쳐 새해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더욱 힘차게 내짚어야 한다.

수학부문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연구 및 새 기술개발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감으로써 나라의 전력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기상예보사업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여 기상예보성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축구조물의 설계와 기계설비의 리용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앞장에서 관철하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올해는 정면돌파전의 첫해이다.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각오와 결심을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보란듯이 기적을 창조하여야 적들의 기를 꺾고 당의 전략적구상관철을 위한 개척로를 힘차게 열어제낄수 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난관을 격파하며 당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세계를 뒤흔드는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더 우렁차게, 줄기차게 울려나가자.